Pharmacia-Novartis, 한국공장 폐쇄

다국적 제약기업 2곳이 국내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Pharmacia 국내 법인인 파마시아코리아는 강원도 횡성의 제약공장을 6월말까지만 가동하고 폐쇄할 예정이다.

횡성공장은 2001년 Pharmacia에 합병된 한국썰이 운영하던 곳으로, 1985년부터 쎄레브렉스, 싸이토텍, 알닥톤 등 의약품 10여종을 생산해왔다.

Pharmacia는 한국썰과의 합병에 따른 후속조치로 횡성공장 생산라인을 수원공장에 통합할 계획으로 있으며, 횡성공장 매각이 완료되면 수원공장 개보수와 신규시설 도입 등에 6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도 경기도 안산공장을 6월말까지 폐쇄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건물과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Novartis는 복잡한 제품 생산비용을 줄여 생산능력을 극대화한다는 본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안산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Novartis는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의약품을 스위스 본사에서 들여와 국내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3>